

강간평가 암묵적 연합 검사(IAT)를 통한 강간에 대한 암묵적 평가와 외현적 평가의 관계에 관한 연구

박 지 애 유 지 영 최 유 나 조 은 경[†]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성범죄에 대한 인지는 성적 가해 행동의 주요 예측 변인으로 여겨져 왔으나, 관련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혼재되어 있어 성범죄에 관여하는 인지의 종류와 그 역할에 대해 더 명확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성범죄에 대한 태도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들마다 태도의 범위는 다르게 설정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강간에 대한 태도를 전통적인 정의에 따라 긍정, 부정의 평가로 측정하였을 때, 인구통계학적 변인, 강간통념 변인, 성적 가해 행동 변인들과의 관계를 통해 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예비 실험을 거쳐 강간에 대한 암묵적 태도를 측정하는 서면 “강간평가 IAT(Implicit Association Test)”를 제작하였고, 강간에 대한 외현적 태도는 강압적인 성관계와 동의된 성관계에 대해 평가하는 자기보고식 검사를 통해 측정하였다. 만 20세 이상의 성인 8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강간을 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암묵적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현적 태도에서는 유의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성적 가해 행동의 유일한 예측변인은 강압적인 성관계에 대한 외현적 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강간에 대한 평가로 정의내린 태도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암묵적 태도, 외현적 태도, 강간통념, 성적 가해 행동, 암묵적 연합 검사(IAT)

[†] 교신저자: 조은경,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 서울시 중구 필동로 1길 30

Tel: 02-2260-3254, E-mail: ekjo@donguk.edu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 ©2024, The Korean Association of Psychology and Law

성범죄는 PTSD, 자살 충동, 불안을 포함하여 피해자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Dworkin 등, 2017),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부정적인 낙인과 2차 피해로 이어지기도 한다(유숙경, 2022). 성범죄는 피해자의 심리사회적 기능을 저하시키며, 성범죄로 인한 피해는 범행 이후 전생애에 걸쳐 지속된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한다(Molstad 등, 2023). 성범죄에 대한 인지는 성적 가해 행동의 주요 예측 변인으로 여겨져 왔으나(Beech 등, 2013), 이에 대한 경험적인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혼재되어 있다. 먼저, 강간범들이 성범죄에 대한 더 높은 인지왜곡을 보였으며(Bumby, 1996), 이는 과거의 성적 가해 경험 및 미래의 성적 가해 행동 경향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Suraez & Gadalla, 2010).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강간범과 일반인 집단 사이에서 강간에 대한 인지왜곡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Pervan & Hunter, 2007), 메타분석 결과 강간범의 강간-지지적 인지(rape-supportive cognitions)가 추후 성범죄 재범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Helmus 등, 2013). 또한, 국내 교정 심리치료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한 선행연구에서는 강간통념이나 아동성추행 척도의 긍정적인 변화량이 재범 억제로는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정숙 등, 2020). 이에, 최근의 이론과 연구들은 성범죄에 관여하는 인지의 종류와 그 역할에 대해 더 명확하게 접근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Nunes 등, 2018; Ó Ciardha & Ward, 2013). 특히, 성범죄에 대한 태도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들마다 태도의 범위는 다르게 설정되어 인지왜곡이나 믿음의 태도에 포함시키는지 여부에 차이가 존재했다

(Nunes 등, 2015). 그러나, 사회심리학적으로 태도의 핵심 요소는 평가에 있으며(Gawronski & Bodenhausen, 2007; Fazio, 2007), 이때의 태도는 전통적으로 심리학적 대상에 대한 긍정, 부정 등의 평가로 정의된다(Ajzen, 2001). 구체적으로, Eagly와 Chaiken(1993)은 태도를 “특정 대상에 대해 호 또는 불호의 정도로 평가함으로써 드러나는 심리학적 경향”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의 개념으로 성범죄에 대한 태도를 측정할 국내외 연구들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강간에 대한 암묵적 평가와 외현적 평가로 강간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변인, 강간통념 변인, 성적 가해 행동 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범죄와 인지

Ward 등(2006)은 믿음, 가치 기반 판단, 행동 기반 판단의 세 가지 인지적 요소를 통해 성범죄 행동을 설명하였다. 믿음은 자신과 세상에 대한 지식을, 가치 기반 판단은 대상에 대한 긍정, 부정 등의 평가적 판단을 일컫는데, 성범죄를 허용하는 믿음과 성범죄를 긍정하는 가치 기반 판단이 범죄를 허용하는 인지 도식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인지적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성적 가해 행동으로 이어지며, 그 이후에는 자신의 행동을 부정하거나 행동의 결과를 최소화시키는 행동 기반 판단이 나타나게 된다. 경험적인 선행연구들에서도 성범죄와 관련된 인지는 성적 가해 행동을 시작하고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으며, 이때 인지란 일반적으로 태도, 인지왜곡, 믿음, 고정관념, 정당

화 등의 여러 인지적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Maruna & Mann, 2006). 관련 선행연구들은 '여성들이 짧은 스커트를 입는 것은 자신을 강간해도 좋다는 의미이며 모든 피해자들은 강간당하는 것을 원한다' 등의 강간 통념에 대한 수용도가 높을수록 성을 왜곡되게 인식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나(Groth, 1979), 성범죄 사건 판단에서 강간 통념 수용도가 높을수록 가해자의 처벌은 가볍게 하고 피해자에게 더 많은 귀인을 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이예림, 박지선, 2021). 또한, 남성은 여성에 비해 성범죄에 대해 더 관대한 태도를 가지며(이선경 등, 2015; Groth, 1979), 연령이 높을수록 강간 피해자를 더 비난하고 성범죄에 대해 더 관대한 태도를 보인다(이선경 등, 2015; 조은경, 박지선, 2020).

그러나 성범죄에 대한 인지와 성범죄 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혼재되어 있다. 강간에 대한 인지왜곡을 자기보고식 검사로 측정하였을 때 강간범들이 더 높은 인지왜곡을 가진다는 선행연구도 존재하나(Bumby, 1996), 같은 검사 도구를 사용한 다른 연구에서는 강간범과 다른 일반인 집단 사이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ervan & Hunter, 2007). 또한, 횡단적인 접근에서 강간-지지적 인지와 과거 성적 가해 행동 및 강간을 할 경향성 사이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나 나타났으나, 종단적인 접근에서 강간-지지적 인지와 재범 사이의 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았다(Suarez & Gadalla, 2010; Gidycz 등, 2011). Helmus 등(2013)의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강간범의 강간을 허용하는 인지가 추후 성범죄 재범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정숙 등(2020)에서는 교정 내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받은 성범죄사범들이 자아존중감,

강간통념, 아동성추행 척도에서 긍정적인 큰 변화량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변화가 재범 억제로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슷하게 Olver 등(2014)의 연구에서도 성범죄자에 대한 인지행동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치료 내 변화량인 프로그램 사전사후 외현적 태도 점수의 차이와 치료 후 변화량인 재범 감소율의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혼재된 연구결과들은 성범죄 행동에서 인지의 역할과 종류에 대해 더 명확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Hermann 등, 2018). 특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강간통념은 행동 기반 판단으로서 성범죄자가 이미 저지른 행동에 대한 정당화 반응으로 간주되고 있으므로, 성범죄 행동을 야기하는 성범죄에 대한 믿음이나 가치 기반 판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Maruna & Mann, 2006).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치 기반 판단 중 성범죄에 대한 태도를 중점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태도

Ajzen(2001)에 따르면, "태도는 좋다-나쁘다, 해로운-이로운, 쾌-불쾌, 호-불호 등의 차원에서 사람, 물건, 행동 등의 심리적 대상에 대한 간결한 평가를 표상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p.28). 태도는 암묵적 태도와 외현적 태도라는 두 가지의 사고 체계를 통해 나타날 수 있다. 암묵적 태도란 대상에 대해 자동적으로 활성화되는 연합적 평가로, 주로 암묵적 연합 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 IAT; Greenwald 등, 1998)를 통해 측정된다. IAT는 두 개의 표적범주와 두 개의 대조범주를 연합하여, 각각의 연합에 따른 반응 시간과 정확성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IAT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만족스러운 정도이거나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Nosek 등, 2007), IAT 방식을 통한 암묵적 태도 측정은 고정관념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영역에서 자기 방어에 영향을 받지 않고 태도를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다(Dovidio 등, 2002). 외현적 태도는 인지적 체계를 거쳐 보고되며, 주로 자기 보고식 검사를 통해 측정된다(Gawronski & Bodenhausen, 2006). 계획된 행동 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에 따르면 외현적 태도는 의도를 거쳐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Ajzen, 2001),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회적 행동은 암묵적 태도로 예측할 수 있다(Bargh, 1996). Beech 등(2005)의 연구에서 연쇄성 살인범들은 여성을 성교를 지속적으로 갈망하는 성적 물체로 여기는 암묵적 태도를 더 강하게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동기나 충분한 기회를 통해 여러 행동적 대안들에 대해 심사숙고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행동은 암묵적 태도보다 외현적 태도의 영향을 더 받으며, 반대의 상황에서는 암묵적 태도의 영향이 더 커지게 된다(Fazio, 1990). 암묵적·외현적 태도와 행동 사이의 관계를 메타분석한 연구 결과는 두 가지의 태도가 각자 독립적으로 행동을 예측한다는 것을 지지한다(Cameron 등, 2012). 즉, 두 가지의 태도는 독특하고 상호보완적인 정보를 제공하므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Nosek & Smyth, 2007).

강간에 대한 평가

위와 같이 태도는 전통적으로 평가의 개념으로 정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선행연구들 중 평가의 개념에서 강간에 대한 태도를

측정한 연구는 많지 않다. 권효석과 이장한(2008)이 개발한 성범죄 IAT는 사람들이 성범죄를 상호적인 행위로 보는지를 측정하여 강간통념과 비교하였고, Field(1978)의 강간에 대한 태도 척도는 대상에 대한 믿음 혹은 의견을 측정하고자 개발되었다. 평가의 개념에서 태도를 측정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Olson과 Fazio(2008)는 점화(priming)를 이용해 강간에 대한 평가적인 암묵적 태도를 측정하였고 강간통념 척도와 여성 적대감 척도를 사용하여 강간-지지적 인지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학생 표본과 일반인 집단에서 모두 암묵적 태도와 강간-지지적 인지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이나 나타나지 않았고, 두 요소가 각자 독립적으로 과거의 성적 가해 행동과 유의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ermann과 Nunes(2018)는 강간-합의된 성관계의 표적범주와 긍정적·부정적 대조범주 사이의 평가적인 암묵적 태도를 IAT를 통해 측정하였고, 강간-지지적 인지를 자기보고식 척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그 결과, 강간에 대한 긍정적인 암묵적 태도는 이후의 성적 가해 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강간-지지적 인지와는 독립적인 예측변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연합적인 평가를 측정하는 암묵적 태도가 다른 인지 요소들과는 별개로 성적 가해 행동을 예측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

본 연구는 강간에 대한 태도를 전통적인 정의에 따라 강간에 대한 긍정·부정의 평가로 측정하였을 때, 다른 인지 및 행동 변인들과의 관계를 통해 그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강간’과 ‘부정적’(또

는 ‘합의된 성관계’와 ‘긍정적’ 단어들의 연합 강도를 측정하는 강간평가 IAT를 개발하였다. 교정 장면에서 강간평가 IAT의 활용 가능성과 컴퓨터 활용이 어려운 교정 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서면 강간평가 IAT를 개발하였다. 서면 IAT는 중앙에 있는 단어가 좌우 범주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응답한 개수를 고려하여 최종점수를 산출한다(Lemm 등, 2008). 컴퓨터 형식 IAT가 제한된 수의 문항에 대한 반응시간을 측정한다면, 서면 IAT는 제한된 시간에서의 정답 수를 측정한다는 점에서 컴퓨터 형식과 동일한 논리를 가진다(Lane 등, 2005). 서면 IAT의 점수와 컴퓨터 IAT 점수는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며(Okabe 등, 2004), 서면 IAT의 타당성은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어 왔다(Lemm 등, 2008; Lowery 등, 2001). 예비 실험을 통해 강간평가 IAT에 사용될 단어 자극의 적절성을 확인한 후, 본 실험에서는 강간에 대한 암묵적·외현적 평가와 인구통계학적 변인, 강간통념 변인, 성적 가해 행동 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강간에 대한 암묵적·외현적 평가의 특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강간을 평가하는 암묵적 태도가 강할수록 강간을 평가하는 외현적 태도가 강할 것이다.

가설 2. 남성이 여성보다 강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암묵적·외현적 태도를 가질 것이다.

가설 3. 연령이 높을수록 강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암묵적·외현적 태도를 가질 것이다.

가설 4-1. 강간을 평가하는 암묵적 태도가

강할수록 강간통념이 강할 것이다.

가설 4-2. 강간을 평가하는 외현적 태도가 강할수록 강간통념이 강할 것이다.

가설 5. 강간을 평가하는 암묵적·외현적 태도는 과거와 미래의 성적 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비 실험

Nunes 등(2013)과 Hermann(2015)의 연구에서 사용한 단어를 참고하여 강간평가 IAT에 사용할 단어 자극들을 선정하였고, 예비 실험은 단어 자극들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강간’과 대치되는 표적범주를 ‘합의된 성관계’로 보았고, 강간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한다는 취협시설에 입각하여 ‘강간’ 범주에는 성적 가해 행동, 성폭력 피해, 성적 가해의 구성개념들을 의미하는 단어들을 포함시켰다. 대조범주는 ‘긍정적’, ‘부정적’으로 설정하여 긍정적인 단어들과 부정적인 단어들을 포함시켰다. 단어 자극들의 적절성은 ‘강간’과 ‘합의된 성관계’ 두 표적군의 친숙도는 차이가 없고 정서적 유인가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와, ‘긍정적’과 ‘부정적’ 두 대조군의 정서적 유인가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리서치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만 19세 이

상의 성인 9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참여자 중 여성이 45명(45.45%)이었으며, 연령 분포는 만 19세에서 만 56세($M = 33.97$, $SD = 8.96$) 사이로 연령대는 만 19~29세 38명(38%), 30대 34명(34%), 40대 23명(23%), 50대 4명(4%)이었다.

연구절차

설문 조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여자들은 연구 참여자 권리를 안내받은 후 표적범주 단어의 친숙도를 7점 리커트 척도 상에 평가하였다('1'='전혀 들어본 적 없다' - '7점'='아주 많이 들어보았다'). 이후 표적범주 단어와 대조범주 단어의 정서적 유인가를 7점 리커트 척도 상에 평가하였다('1'='매우 부정적' - '7점'='매우 긍정적'). 실험 종료 후 참여자들은 P리서치 회사로부터 10크레딧의 보상을 지급받았다.

= 1.65), 4.79($SD = 1.46$)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t(98) = -1.515$, $p = .133$). 이후 표적범주와 대조범주의 단어군 간 정서적 유인가 수준을 확인하였다. 표적범주의 강간 단어군과 합의된 성관계 단어군의 평균은 각각 1.76($SD = 1.08$), 4.77($SD = 1.2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었다($t(98) = -17.316$, $p < .001$). 마찬가지로, 대조범주의 긍정적 단어군과 부정적 단어군의 평균은 각각 5.54($SD = 1.44$), 2.0($SD = 1.1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었다($t(98) = 18.012$, $p < .001$). 따라서, 제외하는 단어 자극 없이 모든 단어 자극들을 최종 자극으로 확정하였다(표 1 참고).

본 실험

방법

결과

조사결과를 토대로 먼저 표적범주의 단어군 간 친숙도를 비교하였다. '강간' 단어군과 '합의된 성관계' 단어군의 평균은 각각 4.64(SD

연구대상

본 실험은 국내 대학의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DUIRB-202308-31)을 받아 진행되었다. 통계 프로그램인 G*Power를 사용하여 상관분석

표 1. 최종 단어 목록

	범주	단어
표적범주	강간	검탈, 폭력적, 강간, 침해하다, 폭행, 학대, 성폭행, 피해자
	합의된 성관계	합의, 상호적, 자발적, 허락, 동의, 연인간의 성관계, 사랑을 나누다, 합의하에
대조범주	긍정적	휴가, 무지개, 미소, 햇살, 천국, 자유, 기쁨, 웃음, 행복, 희망
	부정적	부패, 독, 구역질, 토사물, 대장암, 악마, 못생김, 악취, 질병, 비열함

을 위한 표본 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때 n 은 Mori 등(2008)의 선행연구에 따라 0.3으로 설정하였다. Power 0.8과 1종 오류(α)를 5%로 설정한 결과, 연구에서 요구되는 최소 표본 수는 67명이었다. 인터넷 홍보를 통해 모집한 총 82명의 자발적인 참여자를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나, 이들 중 연습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20초를 초과하여 IAT를 진행한 2명은 최종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최종 분석에 투입된 80명의 자료 중 여성이 49명(60%)이었으며, 연령 분포는 만 19세에서 47세($M = 25.83$, $SD = 4.78$) 사이로 연령대는 만 19~29세 68명(85%), 30대 10명(12.5%), 40대 2명(2.5%)이었다.

측정도구

강간평가 IAT

“강간평가 IAT(Rape Evaluation Implicit Association Test)”는 강간에 대한 암묵적 태도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본 연구에서 개발되었다. 강간평가 IAT의 표적군은 ‘강간’, ‘합의된 성관계’로 대조군은 ‘긍정적’, ‘부정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A, B, C, D의 총 네 개 세트로 구성되어 있다. A, B 세트는 각각 ‘강간’과 ‘부정적’(또는 ‘합의된 성관계’와 ‘긍정적’) 사이의 연합을 측정하며, C, D 세트는 각각 ‘강간’과 ‘긍정적’(또는 ‘합의된 성관계’와 ‘부정적’) 사이의 연합을 측정한다. 범주의 좌·우 위치에 따라 측정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

A 세트		B 세트	
강간 부정적	합의된 성관계 긍정적	합의된 성관계 긍정적	강간 부정적
<input type="radio"/>	악취	<input type="radio"/>	악마
<input type="radio"/>	자발적인	<input type="radio"/>	미소
<input type="radio"/>	비열함	<input type="radio"/>	부패
<input type="radio"/>	겁탈	<input type="radio"/>	희망
<input type="radio"/>	폭행	<input type="radio"/>	휴가

C 세트		D 세트	
합의된 성관계 부정적	강간 긍정적	강간 긍정적	합의된 성관계 부정적
<input type="radio"/>	웃음	<input type="radio"/>	행복
<input type="radio"/>	허락한	<input type="radio"/>	피해자
<input type="radio"/>	못생김	<input type="radio"/>	성폭행
<input type="radio"/>	합의하에	<input type="radio"/>	폭행
<input type="radio"/>	행복	<input type="radio"/>	허락한

그림 1. 강간평가 IAT 자극 예시

기에(Greenwald 등, 2022), 범주의 좌·우 위치만을 달리하여 두 세트씩 구성하였다.

A 세트에서는 좌측 상단에 ‘강간-부정적’, 우측 상단에 ‘합의된 성관계-긍정적’이 제시된다. 참여자들은 표 가운데에 제시된 단어자극을 보고 해당 단어가 ‘강간 또는 부정적’ 범주에 속한다면 왼쪽 동그라미에 체크하고, ‘합의된 성관계 또는 긍정적’ 범주에 속한다면 오른쪽 동그라미에 체크하여야 한다. C 세트에서는 좌측 상단에 ‘합의된 성관계-부정적’, 우측 상단에 ‘강간-긍정적’이 제시된다. 참여자들은 표 가운데에 제시된 단어자극을 보고 해당 단어가 ‘합의된 성관계 또는 부정적’ 범주에 속한다면 왼쪽 동그라미에 체크하고, ‘강간 또는 긍정적’ 범주에 속한다면 오른쪽 동그라미에 체크해야 한다. 이때, 답을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응답하도록 지시한다. 세트의 단어들은 무작위로 배열하였다(그림 1 참고).

강간평가 IAT 점수는 [A세트 정답 수 + B세트 정답 수] - [C세트 정답 수 + D세트 정답 수]로 산출하였으며, 점수의 범위는 최소 -96점부터 최대 96점까지 가능하다. IAT의 점수가 클수록 해당 암묵적 태도의 강도가 더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Lemm 등, 2008). IAT 점수가 양수이면 강간을 부정적으로 보는 암묵적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IAT 점수가 음수이면 강간을 긍정적으로 보는 암묵적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IAT에 대한 사전지식($\alpha(78) = 1.101, p = .291$) 혹은 시행경험($\alpha(78) = 0.682, p = .497$)에 따른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또한, [A세트 정답 수 - D세트 정답 수]와 [B세트 정답 수 - C세트 정답 수]의 IAT 점수를 비교하여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 Cronbach's $\alpha = .692$ 로 기존의 IAT들($r = .52 - .74$)에 비교했을 때 양

호한 신뢰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Greenwald 등, 2003).

강간에 대한 평가 척도

강간에 대한 평가 척도는 강간에 대한 외현적인 평가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이며, ‘강압적인 성관계’와 ‘동의된 성관계’ 두 가지로 구성된다.(Hermann, 2015). 다섯 개의 양극 형용사 쌍에 대하여 7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며, 응답들의 평균으로 전체 점수를 산출한다. 문항은 ‘강압적인 성관계를 갖는 것은’과 ‘동의된 성관계를 갖는 것은’이며, 각 형용사 쌍은 ‘부정적-긍정적, 잘못된-옳은’ 등이 있다. 강압적 성관계에 대한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강간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함을 의미하며, 동의된 성관계에 대한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된 성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함을 의미한다. Hermann(2015)의 연구에서는 강압적인 성관계에 대한 평가와 동의된 성관계에 대한 평가를 모두 측정하였으나, 강압적인 성관계에 대한 평가 측정치만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강간평가 IAT의 표적범주가 ‘합의된 성관계’와 ‘강간’이기 때문에, 두 개념 모두에 대한 외현적 측정치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 강압적인 성관계 척도에 대한 신뢰도(Cronbach's α)는 .880, 동의된 성관계에 대한 신뢰도(Cronbach's α)는 .835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강간통념척도

Burt(1980)가 강간, 강간범, 강간 피해자에 대한 그릇된 믿음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강간통념수용척도를 이석재(1999)가 수정 및 보완한 것으로, 모두 20문항, 9점 척도로 되어있다. 척도의 문항은 ‘여자가 처음 만난 남자의

집을 찾아가는 것은 그와의 성관계를 허락하는 뜻이다, 여자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차를 얻어 타려다 강간을 당했다면, 그녀는 당할 만하다.' 등이다. 본 연구에서 해당 척도에 대한 신뢰도(Cronbach's α)는 .847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성폭력 가능성 척도

성적 가해 행동을 할 경향성을 측정하는 척도로(Malamuth, 1981), 행동이 발각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강간을 할 것인지를 질문한다. 두 문항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한다. 문항은 '만일 어느 누구도 알 수 없고 처벌을 받지 않음을 확신할 수 있다면, 나는 상대가 원하지 않음에도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강요할 가능성이 있다.' 등이다. 본 연구에서 해당 척도에 대한 신뢰도(Cronbach's α)는 .888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성적 가해 경험 척도

과거 성적 가해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김나은과 박지선(2021)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총 10문항, 5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있다. 척도의 문항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얼굴, 팔, 다리 등 몸을 만진 적이 있다, 상대방의 기분에 상관없이 키스한 적이 있다, 성관계를 하기 위해 상대방을 잡거나 누르는 등의 완력을 사용한 적이 있다' 등이다. 본 연구에서 해당 척도에 대한 신뢰도(Cronbach's α)는 .741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연구절차

실험은 서울 소재 대학교에서 한 회기 당 1명에서 3명씩 실시하였다. 모든 측정치에서

그룹 실시와 개인 실시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실험은 한 공간에서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연구원 1명이 절차를 진행하였다. 익명성 보장을 위해 참여자들에게 임의의 숫자를 부여하였다. 이때 실시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난수표 숫자 앞에 그룹 실시의 경우 G, 개인 실시의 경우 I를 추가하였다. 강간평가 IAT 실시 이후 진행된 자기보고식 검사에는 성적 가해 경험 척도 등 민감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참여자가 보다 솔직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연구원은 별도의 방으로 이동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인 '강간에 대한 암묵적 태도 측정'을 직접적으로 말할 경우, 자극적인 단어(강간)로 인해 연구 참여자의 응답에 영향이 갈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연구 목적을 '성에 대한 암묵적 태도 측정'이라고 소개하였다.

참여자들은 연구 참여자 권리를 안내받은 후, 서면 IAT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연습용 IAT를 실시하였다. 연습용 IAT의 표적군은 '꽃'과 '벌레'이며 대조군은 '좋다', '나쁘다'였다. 연구원은 주어진 20초의 시간동안 응답에 대해 수정 없이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에 반응하도록 안내 후 IAT 검사를 실시하였다. 서면 IAT는 짧은 제한 시간동안만 응답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연구자는 타이머를 활용하여 제한 시간 준수에 주의를 기울였다. 연습 검사를 마친 뒤에 참여자들은 IAT 진행 방식에 대해 간단한 피드백을 제공받았다. 강간평가 IAT는 연습 검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여자들은 4개의 자극 세트로 구성된 강간평가 IAT를 수행하였다. 이때, 자극 세트의 순서는 순서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선으로 할당되었고, 각 세트별로 20초의 시간이 주어졌다. 강간평가 IAT 검사 종료 이후

참여자들은 강간에 대한 평가 척도, 강간통념 척도, 성폭력 가능성 척도, 성적 가해 경험 척도의 자기보고식 검사에 응답하였다. 그 후 본 검사 실시 전 IAT에 대해 들어본 경험, 실시 여부를 묻는 질문과 인구통계학적 질문을 끝으로 실험은 종료되었다. 참여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솔직한 응답을 얻기 위해 자기보고식 검사와 인구통계학적 질문은 모두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하였다. 실험 종료 후 참여자들은 본 연구의 실제 목적을 안내받았으며, 끝까지 실험을 완료했을 경우 보상으로 현금 5,000원이 지급되었다.

결 과

기술통계

강간에 대한 암묵적 평가의 경우, 강간평가 IAT 점수의 최솟값이 양수인 3점이므로 본 연구에서 강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암묵적 태도를 가진 참가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후에 보고되는 결과들은 강간평가 IAT 점수의 크기에 따라 강간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표본이 강간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강간에 대한 외현적 평가의 경우, 강압적인 성관계에 대한 평가 척도의 평균값이 1.22점인 반면 동의된 성관계에 대한 평가 척도의 평균값은 6.39점으로 모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쏠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2 참고).

성별, 연령과의 관계

성별에 따른 강간에 대한 암묵적 평가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남성($M = 22.81, SD = 10.90$)이 여성($M = 27.83, SD = 10.6$)에 비해 강간평가 IAT 점수가 낮았다, $t(78) = 2.04, p = .022$. 즉, 남성이 여성보다 강간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암묵적 태도가 유의하게 더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Cohen's $d = .466$). 또한, 연령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강간평가 IAT 점수는 연령과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 -.259, p = .020$). 즉, 연령이 높을수록 강간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암묵적 태도가 유의하게 더 약한 것

표 2. 측정 변인들의 기술통계

	변인	범위 (최솟값-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암묵적 태도	강간평가 IAT	3 - 54	25.83	11
	강압적인 성관계에 대한 평가	1.0 - 3.4	1.22	0.53
	동의된 성관계에 대한 평가	4.0 - 7.0	6.39	0.70
외현적 태도	강간통념	1.0 - 3.6	1.63	0.65
	성폭력 가능성	2.0 - 9.0	2.50	1.32
	성적 가해 경험	1.0 - 2.6	1.17	0.32

으로 나타났다.

강압적인 성관계에 대한 평가는 남성($M = 1.225, SD = 0.53$)과 여성($M = 1.217, SD = 0.53$)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t(78) = 0.07, p = .47$), 동의된 성관계에 대한 평가 역시 남성($M = 6.475, SD = 0.72$)과 여성($M = 6.33, SD = 0.70$)이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t(78) = 0.90, p = .18$). 연령 또한 강압적인 성관계($r = -.118, p = .148$) 혹은 동의된 성관계($r = .053, p = .321$)와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인지 변인들 간의 관계

강간에 대한 암묵적 평가와 다른 외현적인 인지 요인들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강간평가 IAT 점수는 강압적인 성관계에 대한 평가($r = .249, p = .026$), 동의된 성관계에 대한 평가($r = .241, p = .031$)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강간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암묵적 태도가 강할수록 강압적인 성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외현적 태도가 높았다. 반면, 강간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암묵적

태도가 강할수록 동의된 성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외현적 태도가 높았다(표 3 참고). 강간평가 IAT 점수와 유의한 관계를 보였던 성별과 연령 변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고자, 성별, 연령, 강간에 대한 외현적인 평가, 강간 통념을 예측변인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참고). 먼저, 독립변수 사이에 다중 공선성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분산팽창요인)를 확인하였다. 모든 변수의 VIF 지수가 1점대(최소: 1.019, 최대: 1.104)로 다중 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귀분석 결과,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22%의 설명력을 나타냈다($F(5, 74) = 5.557, p < .001$). 예측변인들 중 연령($\beta = -0.232, p = .023$), 성별($\beta = 0.266, p = .010$), 동의된 성관계에 대한 평가($\beta = 0.307, p = .003$)의 변인들만이 유의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낮고, 여성이며, 동의된 성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외현적 태도는 강간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암묵적 태도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다(표 4 참고).

강간에 대한 외현적 평가 중 강압적인 성관계에 대한 평가는 강간통념($r = .276, p =$

표 3. 변인들 간 상관관계

	a	b	c	d	e	f	g
a. 강간평가 IAT	1						
b. 강압적인 성관계	.249*	1					
c. 동의된 성관계	.241*	-.069	1				
d. 강간통념	.176	.276*	-.078	1			
e. 성폭력 가능성	.147	.604**	.048	.323**	1		
f. 성적 가해 경험	.262*	.407**	-.035	.308**	.377**	1	
g. 연령	-.259*	-.118	.053	-.036	-.106	-.068	1

표 4. 강간평가 IAT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변인	<i>B</i>	<i>SE</i>	β	<i>t</i>
(상수)	-4.281	12.630		-0.339
강압적인 성관계	4.157	2.170	0.199	1.915
동의된 성관계	4.791	1.564	0.307	3.063**
강간통념	2.854	1.769	0.168	1.613
연령	-0.533	0.230	-0.232	-2.317*
성별	5.923	2.243	0.266	2.640*
<i>F</i>		5.557***		
<i>R</i> ²		.273		
adj. <i>R</i> ²		.224		

* $p < .05$, ** $p < .01$, *** $p < .001$

.013)과 정적 상관을 보여, 강압적인 성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강간통념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폭력 가능성 척도($r = .604, p < .001$)와 성적 가해 경험 척도($r = .407, p < .001$)와 정적 상관을 보여, 과거와 미래의 성적 가해 행동과도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된 성관계에 대한

평가는 다른 변인들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표 3 참고).

성적 가해 행동과의 관계

과거의 성적 가해 행동을 현재의 인지 요소들이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성적 가해 경험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되

표 5. 성적 가해 경험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변인	<i>B</i>	<i>SE</i>	β	<i>t</i>
(상수)	0.775	0.323		2.396
강간평가 IAT	0.005	0.003	0.160	1.458
강압적인 성관계	0.190	0.066	0.312	2.876**
동의된 성관계	-0.017	0.048	-0.037	-0.351
강간 통념	0.094	0.053	0.191	1.791
<i>F</i>		5.580***		
<i>R</i> ²		.229		
adj. <i>R</i> ²		.188		

* $p < .05$, ** $p < .01$, *** $p < .001$

표 6. 성폭력 가능성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변인	B	SE	β	t
(상수)	-1.078	1.174		-0.918
강간평가 IAT	-0.007	0.012	-0.057	-0.586
강압적인 성관계	1.445	0.240	0.576	6.028***
동의된 성관계	0.216	0.175	0.115	1.237
강간 통념	0.375	0.191	0.183	0.054
F		12.717***		
R ²		.404		
adj. R ²		.372		

* $p < .05$, ** $p < .01$, *** $p < .001$

는 강간에 대한 암묵적·외현적 평가와 강간 통념을 예측변인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참고). 먼저, 독립변수 사이에 다중 공선성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VIF를 확인하였다. 모든 변수의 VIF 지수가 1점대(최소: 1.092, 최대: 1.17)로 다중 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회귀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R^2(4, 75) = 5.580, p < .001$), 약 19%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예측변인들 중 강압적인 성관계에 대한 평가만이 유의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beta = 0.312, p = .005$).

미래의 성적 가해 행동 경향성을 예측하고자, 성폭력 가능성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되는 강간에 대한 암묵적·외현적 평가와 강간 통념을 예측변인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6 참고). 그 결과, 회귀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R^2(4, 75) = 12.717, p < .001$), 약 37%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예측변인들 중 강압적인 성관계에 대한 평가만이 유의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beta = 0.576, p < .001$).

논 의

본 연구는 강간에 대한 태도를 전통적인 정의에 따라 긍정, 부정의 평가로 측정하였을 때,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를 통해 그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강간과 ‘부정적(또는 ‘합의된 성관계’와 ‘긍정적’) 단어들의 연합 강도를 측정하는 강간평가 IAT를 서면으로 개발하고자 하였고, 예비 실험을 통해 강간평가 IAT의 단어자극들의 적절성을 확인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강간평가 IAT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암묵적·외현적 평가와 인구통계학적 변인, 강간통념 변인, 성적 가해 행동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남성은 여성에 비해 성범죄에 대해 더 관대한 태도를 더 보인다(이선경 등, 2015; Groth, 1979). 또한 나이가 많은 사람은 적은 사람에 비해 강간 피해자를 더 비난하고 성범죄에 대해 더 관대한 태도를 보인다(이선경 등, 2015; 조은경, 박지선, 2020).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강간에 대한 암묵적·외현적 평가에서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

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강간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암묵적 평가 점수가 낮았으나 강간에 대한 외현적 평가에서는 유의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IAT를 통해 사회적으로 민감한 영역에서 자기방어의 영향을 받지 않고 태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며(Dovido 등, 2002), IAT가 집단 간의 차이를 잘 반영한다는 선행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Schimmack, 2021). 그러나 연령이 낮을수록 강간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암묵적 태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현적 평가를 비롯한 다른 변인들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기존의 선행 연구와는 상충되는 결과로, 참여자들의 연령 분포가 매우 좁았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연령에 따른 태도 변화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대개 20대-60대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본 연구 참여자들의 연령 분포는 20대에 쏠려 있었기 때문에 추후에 넓은 연령 분포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암묵적 태도와 외현적 태도는 서로 약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며(Mori 등, 2008), 강간에 대한 태도는 강간통념과 정적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이유선 등, 2009).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강간에 대한 암묵적 평가, 외현적 평가와 강간통념이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강간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암묵적 태도가 강할수록 동의된 성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외현적 태도뿐만 아니라 강압적인 성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외현적 태도도 강함을 보여주었다. 다만 행동 변인을 제외하고 앞서 유의했던 연령과 성별 변인까지 종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강압적인 성관계에 대한 평가는 예측 변인으로

써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분석에서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사회적 바람직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먼저, 강압적인 성관계는 동의된 성관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두 척도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나, 실제로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강압적인 성관계라는 표현과 관련 문항이 동의된 성관계에 비해 참여자에게 사회적으로 더 민감하게 인식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더불어,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진 강간통념 척도(Bumby, 1996)와 강압적 성관계 척도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사실도 가능성을 더한다. 따라서 강간에 대해 덜 부정적인 암묵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참여자라도 의식적으로 강압적인 성관계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평가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Anderson(2019)의 연구에서도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에 대한 외현적 태도는 긍정적으로 나타난 반면 암묵적 태도는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바람직성이 조절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현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가 서로 다른 인지 요소를 측정한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기도 하다(Nosek & Smyth, 2007). 따라서 향후에는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를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인지 변인들이 과거의 성적 가해 행동과 미래의 성적 가해 행동 경향성을 얼마나 설명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상관분석에서 강간평가 IAT와 성적 가해 경험 사이에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중회귀분석에서 강간평가 IAT는 유의한 예측변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성적 가해 경험 척도가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으로 인해 왜곡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성적

가해 행동 변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에서 유의한 예측변인은 강압적인 성관계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나타났다. 성적 가해 행동 변인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던 강간통념은 다중회귀분석에서는 유의한 예측변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태도가 강간통념과 같은 인지왜곡을 반영한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Anderson 등, 1997). 그러나, 인지왜곡과 태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강간통념과 강압적인 성관계에 대한 평가 척도 사이의 관계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예상과 달리 본 연구에서 강간에 대한 암묵적 평가는 성적 가해 행동과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강간'을 '부정적'보다 '긍정적'으로 연합하는 참가자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컴퓨터 형식의 IAT를 사용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서면을 사용했다는 점도 이러한 결과의 차이를 만들었을 수 있다(Hermann & Nunes, 2018).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더 다양한 표본을 대상으로 컴퓨터 형식과 종이 형식의 강간평가 IAT를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강간평가 IAT의 정확성과 타당성 문제로, 범주와 단어 간의 연합으로 암묵적 태도를 산출하는 IAT의 방법과 결과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Fazio & Olsen, 2003). 특히 본 연구에서는 작은 표본 수로 인해 강간평가 IAT의 모든 특성을 파악할 수 없었으며, 강간평가 IAT에서 활용한 단어 자극들의 형식이 통일되지 않고 다양한 글자 수와 음절로 구성되어 있었다. 단어 길이의 비일관성은 단어 길이 효과(word length effect)로 인해 참여자의

응답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이은희, 이은주, 2019; Baddeley 등, 1975). 따라서 암묵적 태도를 보다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와 측정기법의 개발이 앞으로 더 필요할 것이다. 둘째, 강간평가 IAT에서 측정하는 태도와 성적 가해 행동 사이에 괴리가 존재할 수 있다. 강간범들 중 자신의 범행이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강간범 역시 합의된 성관계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반응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당화 반응이거나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실제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강간평가 IAT 점수와 성적 가해 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성적 가해 경험 척도와 성폭력 가능성 척도를 활용하였는데, 이처럼 자기보고식 검사를 통해 성적 가해 행동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Lalumière 등, 2005). 참여자들이 자신의 과거 행동을 제대로 회상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추후에는 공식적인 유죄 기록과 같은 객관적인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넷째, 충분한 표본의 크기와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표본 수는 상관분석에 요구되는 최소 참가자 수는 충족하였으나, 다중회귀분석에서 요구하는 92명에는 미치지 못하는 크기였다. 또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던 예비 실험과 달리 본 실험은 오프라인으로 교내에서 진행됨에 따라, 연구 참여자의 대부분이 학생 신분의 20대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보다 넓은 범위의 많은 표본을 대상으로 재검증 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는 강간에 대한 평가가 성적 가해 행동에 영

향을 미치는 인지 요소들 중 하나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강간에 대한 외현적 평가 척도는 기존에 활발하게 연구되던 강간통념과는 다르게 성적 가해 행동을 예측하며, 강간평가 IAT는 낮은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으로 인해 자기 보고식 검사와는 다른 인지 요소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강간평가 IAT의 구성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들이 필요하겠으며, 이 때 서면 IAT 특성에 주의하여 실험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 참여자가 서면 IAT 진행 방식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연습용 IAT를 적절히 활용해야 할 것이고, 검사가 정해진 시간을 지키며 수행될 수 있도록 연구자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가 더욱 확장되어 다양한 방면에서 검증된다면, 강간에 대한 평가는 교정 실무 측면에서 성적 가해 행동에 대한 동적 위험 요소(dynamic risk factor)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Andrews & Bonta, 2010). 향후 강간을 평가하는 태도가 유의하게 변화될 수 있고 이러한 변화가 성적 가해 행동의 변화를 이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위험성 평가, 관리, 치료의 측면에서 강간에 대한 평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이다(Hermann 등, 2018).

참고문헌

- 권효석, 이장한 (2008). 성폭력 게임 노출 후의 암묵적 태도 변화.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4), 943-959.
- 김나은, 박지선 (2021). 성별에 따른 자기애가 데이트 성폭력에 미치는 영향: 양가적 성차별의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법*, 12(3), 279-300.
- 유숙경 (2022). 교정시설 남성 성범죄자의 범죄 유형별 재범 예방에 긍정심리 프로그램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혼합연구 방법 접근. *한국중독범죄학회보*, 12(4), 147-177
- 윤정숙, 김민영, 이태현 (2020). 교정시설내 성범죄자 심리치료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147.
- 이석재 (1999). 강간통념척도의 개발과 타당도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131- 148.
- 이선경, 허용희, 박선웅 (2015). 성별과 나이에 따른 성폭력 인식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9(1), 65-81.
- 이예림, 박지선 (2021). 권위주의 성격과 강간통념 수용도에 따른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의 판단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법*, 12(1), 75-97.
- 이유선, 최준호, 오대영, 이장한 (2009). 성범죄자의 외현적 및 암묵적 태도 간의 관계 연구. *한국임상심리학회*, 28(3), 709-721.
- 이은희, 이은주 (2019). 단어 빈도와 길이가 20대 성인과 노인의 어휘판단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논총*, 35(3), 93-110.
- Ajzen, I. (2001). Nature and operation of attitud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1), 27-58.
- Anderson, C. A., & Bushman, B. J. (1997). External Validity of "Trivial" Experiments: The Case of Laboratory Aggression.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1(1), 19-41.
- Anderson, J.R. (2019). The moderating role of socially desirable responding in implicit-explicit attitudes toward asylum seekers. *Int J Psychol*, 54, 1-7.

- Andrews, D. A., & Bonta, J. (2010). *The psychology of criminal conduct* (5th ed.). Cincinnati, OH: Anderson.
- Baddeley, A. D., Thomson, N., & Buchanan, M. (1975). Word length and the structure of short-term memory. *Journal of Verbal Learning and Verbal Behavior*, *14*, 575-589.
- Bargh, J. A., Chen, M., & Burrows, L. (1996). Automaticity of social behavior: Direct effects of trait construct and stereotype activation on 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2), 230-244
- Beech, A. R., Bartels, R. M., & Dixon, L. (2013). Assessment and treatment of distorted schemas in sexual offenders. *Trauma, Violence, & Abuse*, *14*(1), 54-66.
- Beech, A., Fisher, D., & Ward, T. (2005). Sexual Murderers' Implicit Theori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0*(11), 1366-1389.
- Bumby, K. M. (1996). Assessing the cognitive distortions of child molesters and rapist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MOLEST and RAPE scales. *Sexual Abuse: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8*(1), 37-54.
- Burt, M. R. (1980). Cultural myths and supports for ra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2), 217-230.
- Cameron, C. D., Brown-Iannuzzi, J. L., & Payne, B. K. (2012). Sequential priming measures of implicit social cognition: A meta-analysis of associations with behavior and explicit attitud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6*(4), 330-350.
- Dovidio, J. F., Kawakami, K., & Gaertner, S. L. (2002). Implicit and explicit prejudice and interracial inte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1), 62-68.
- Dworkin, E. R., Menon, S. V., Bystrynski, J., & Allen, N. E. (2017). Sexual assault victimization and psychopathology: A review and meta-analysis. *Clinical Psychology Review*, *56*, 65-81.
- Eagly, A. H., & Chaiken, S. (1993). *The psychology of attitudes*. Fort Worth, TX: Harcourt Brace Jovanovich.
- Fazio, R. H. & Olsen, M. A. (2003). Implicit measures in social cognition research: Their meaning and us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4*, 297-327.
- Fazio, R. H. (1990). *Multiple processes by which attitudes guide behavior: The MODE model as an integrative framework*. In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3, pp. 75-109). Elsevier.
- Field, H.S. (1978). Attitudes towards rape: A comparative analysis of police, rapists, counsellors and citize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2), 156-179
- Gannon, T. A., Ward, T., & Collie, R. (2007). Cognitive distortions in child molesters: Theoretical and research developments over the past two decade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2*, 402-416.
doi: 10.1016/j.avb.2006.09.005
- Gawronski, B., & Bodenhausen, G. V. (2006). Associative and propositional processes in evaluation: an integrative review of implicit and explicit attitude change. *Psychological Bulletin*, *132*(5), 692-731.
- Gawronski, B., & Bodenhausen, G. V. (2007).

- Unraveling the processes underlying evaluation: Attitud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PE model. *Social Cognition*, 25(5), 687-717.
- Gidycz, C. A., Warkentin, J. B., Orchowski, L. M., & Edwards, K. M. (2011). College men's perceived likelihood to perpetrate sexual aggression. *Journal of Aggression, Maltreatment & Trauma*, 20(3), 260-279.
- Greenwald, A. G., Brendl, M., Cai, H., Cvencek, D., Dovidio, J. F., Friese, M., ... & Wiers, R. W. (2022). Best research practices for using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Behavior Research Methods*, 54, 1161-1180.
- Greenwald, A. G., McGhee, D. E., & Schwartz, J. L. (1998).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implicit cognition: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6), 1464-1480.
- Greenwald, A. G., Nosek, B. A., & Banaji, M. R. (2003). Understanding and using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I. An improved scoring algorith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2), 197-216.
- Groth, N. (1979). *Men who rape*. NY: Plenum.
- Hanson, R. K., & Bussiere, M. T. (1998). Predicting relapse: a meta-analysis of sexual offender recidivism studi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6(2), 348-362.
- Helmus, L., Hanson, R. K., Babchishin, K. M., & Mann, R. E. (2013). Attitudes supportive of sexual offending predict recidivism: A meta-analysis. *Trauma, Violence, & Abuse*, 14(1), 34-53.
- Hermann, C. A. (2015). *Evaluations of Rape: Investigations Using Implicit and Explicit Measures, Online Research Methodology, and Samples of Community Men* [Doctoral dissertation, Carleton University].
- Hermann, C. A., & Nunes, K. L. (2018). Implicit and Explicit Evaluations of Sexual Aggression Predict Subsequent Sexually Aggressive Behavior in a Sample of Community Men. *Sexual Abuse*, 30(5), 510-532.
- Hermann, C. A., Nunes, K. L., & Maimone, S. (2018). Examining Implicit and Explicit Evaluations of Sexual Aggression and Sexually Aggressive Behavior in Men Recruited Online. *Sexual Abuse*, 30(5), 484-509.
- Lalumière, M. L., Harris, G. T., Quinsey, V. L., & Rice, M. E. (2005). *The causes of rape: Understand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male propensity for sexual aggression*.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Lane, K. A., Mitchell, J. P., & Banaji, M. R. (2005). Me and My Group: Cultural Status Can Disrupt Cognitive Consistency. *Social Cognition*, 23(4), 353-386.
- Lemm, K. M., Lane, K. A., Sattler, D. N., Khan, S. R., & Nosek, B. A. (2008). Assessing implicit cognitions with a paper-format implicit association test. In Morrison T., Morrison M. (Eds.), *The psychology of modern prejudice* (pp. 123-146). Hauppauge, NY: Nova Science Publishers.
- Lowery, B. S., Hardin, C. D., & Sinclair, S. (2001). Social influence effects on automatic racial prejud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5), 842-855.
- Malamuth, N. M. (1981). Rape Proclivity Among Males. *Journal of Social Issues*, 37(4), 138-157.

- Maruna, S., & Mann, R. E. (2006). A fundamental attribution error? Rethinking cognitive distortions. *Legal and Criminological Psychology, 11*(2), 155-177.
- Molstad, T. D., Weinhardt, J. M., & Jones, R. (2023). Sexual Assault as a Contributor to Academic Outcomes in University: A Systematic Review. *Trauma, Violence, & Abuse, 24*(1), 218-230.
- Mori, K., Uchida, A., & Imada, R. (2008). A paper-format group performance test or measuring the implicit association of target concepts. *Behavior Research Methods, 40*(2), 546-555.
- Nosek, B. A., & Smyth, F. L. (2007). A Multitrait-Multimethod Validation of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Experimental Psychology, 54*(1), 14-29.
- Nunes, K. L., Hermann, C. A., & Ratcliffe, K. (2013). Implicit and Explicit Attitudes Toward Rape are Associated With Sexual Aggressio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8*(13), 2657-2675.
- Nunes, K. L., Hermann, C. A., White, K., Pettersen, C., & Bumby, K. (2018). Attitude May Be Everything, But Is Everything an Attitude? Cognitive Distortions May Not Be Evaluations of Rape. *Sexual Abuse, 30*(1), 43-62.
- Ó Giardha, C., & Ward, T. (2013). Theories of Cognitive Distortions in Sexual Offending: What the Current Research Tells Us. *Trauma, Violence, & Abuse, 14*(1), 5-21.
- Okabe, Y., Kijima, T., Sato, A., Yamashita, M., & Tajimi, T. (2004). Validating the paper-and-pencil version of Implicit Association Test: Implicit attitudes towards the supernatural power in under graduates. *Bulletin of Human Science, 26*, 145-151.
- Olson, M. A., & Fazio, R. H. (2008). Implicit and Explicit Measures of Attitudes: The Perspective of the MODE Model. In R. E. Petty, R. H. Fazio, & P. Briñol (Eds.), *Attitudes: Insights from the new implicit measures* (pp. 19-63). New York, NY: Psychology Press.
- Olver, M. E., Nicholaichuk, T. P., Kingston, D. A., & Wong, S. C. (2014). A multisite examination of sexual violence risk and therapeutic chang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82*(2), 312-324.
- Paulhus, D. L. (2002). Socially Desirable Responding: The Evolution of a Construct. In H. I. Braun, D. N. Jackson, & D. E. Wiley (Eds.), *The role of constructs in psychological and educational measurement* (pp. 49-69).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Pervan, S., & Hunter, M. (2007). Cognitive distortions and social self-esteem in sexual offenders. *Applied Psychology in Criminal Justice, 3*(1), 75-91.
- Schimmack, U. (2021).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A Method in Search of a Construct.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16*(2), 396-414.
- Shiomura, K. (2015). Procedures and guidelines for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IAT): A practice manual on paper-pencil IAT. *Japanese Journal of Interpersonal and Social Psychology, 15*, 31-38.
- Suarez, E., & Gadalla, T. M. (2010). Stop Blaming the Victim: A Meta-Analysis on Rape Myths.

한국심리학회지 : 법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5(11), 2010-2035.

Ward, T., & Beech, A. (2006). An integrated theory of sexual offending.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1(1), 44-63.

1 차원고접수 : 2024. 05. 28.

심사통과접수 : 2024. 07. 08.

최종원고접수 : 2024. 07. 15.

The Relationship Between Implicit and Explicit Evaluation of Rape: Using the Rape Evaluation Implicit Association Test

Jiae Park Jiyoung You Yuna Choi Eunkyung Jo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Dongguk University

Cognitions of sexual crimes are key predictors of sexually aggressive behavior, yet prior studies have shown mixed results.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e types and roles of cognitions involved in sexual crimes, focusing on attitudes toward rape. Attitudes were measured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definition as positive or negative evaluations and examined through relationships with demographics, rape myths, and sexually aggressive behavior variables. A paper format 'Rape Evaluation Implicit Association Test' was developed to measure implicit attitudes in a pilot study, while explicit attitudes were assessed via self-reports on coercive and consensual sexual relationships. The study with 80 adults found that men had less negative implicit attitudes toward rape than women, with no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s in explicit attitudes. The only significant predictor of sexually aggressive behavior was the explicit attitude toward coercive sexual relationships. These findings discuss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defining attitudes toward rape through evaluations.

Key words : Implicit Attitude, Explicit Attitude, Rape Myth, Sexually Aggressive Behavior, Implicit Association Theory